

교정전문가 및 교정상담자가 인식하는 출소자의 사회재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ocial Readjustment Experience of Ex-Offenders Based on Perceptions of Correctional Professionals and Correctional Counselors

이동훈, 조은정, 양순정, 양하나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외상심리건강연구소

Dong-Hun Lee(dhlawrence05@gmail.com), Eun-Jung Jo(bbcrew_ej24@naver.com),
Soon-Jeong Yang(sister4th@hanmail.net), Ha-Na Yang(hana0813@gmail.com)

요약

본 연구는 교정전문가 및 상담자의 인식을 통해 출소자의 사회재적응 경험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범죄학 교수, 판사, 교정시설 종사자 등 교정전문가와 한국범무보호복지공단의 교정 상담자, 총 18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Krippendorff(2003)가 제안한 내용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출소자들의 사회재적응 경험과 관련하여 '교육', '심리치료', '취업 및 구직활동', '봉사·문화·여가 활동', '사회·국가적 지원'의 5개 영역에서 보호요인, 장애요인, 정책제언의 요소를 15개의 차원과 36개의 범주, 77개의 의미단위로 도출하였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논의와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출소자 | 교정전문가 | 교정상담자 | 내용분석 | 사회재적응 |

Abstract

This study was to explore ex-offender's social readjustment based on the perceptions of correctional professionals and correctional counselors. For the study, 10 correctional professionals were interviewed including university professors majoring in criminology, judges of family court, various correctional workers and 8 correctional counselors responsible for counseling of ex-offender's in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The interviews were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procedures proposed by Krippendorff(2003). The results were composed of 5 spheres, 15 dimensions, 36 categories, and 77 meaning contents. With regard to social readjustment experiences of ex-offender's, domains such as 'education', 'psychotherapy', 'employment and job search', 'service, culture and leisure', and 'social and national support' were drawn from the analys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were presented.

■ keyword : | Ex-Offender | Correctional Professional | Correctional Counselor | Content Analysis | Social Readjustment |

1. 서론

‘2016 범죄백서’에 따르면 2005년 32,969명이었던 수형자 수는 2015년 기준 35,098명으로 우리나라의 범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형이 확정되지 않아 구치소 등에 있는 미결수용자의 경우 같은 기간 14,342명에서 18,316명으로 급증하여 전체적으로 교정시설에 수감된 인원은 5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1]. 2016년 11월 기준 서울구치소의 수용률은 158%로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158명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이러한 현상은 매년 수감인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 배경에는 출소자가 사회재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재범과 관련이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전체 범죄자 중 특별법범을 제외한 형법범죄자의 재범율은 2006년 63.7%에서 2009년 65.5%에 이르기까지 63%~65%대를 유지하다가 2010년 55.7%, 2011년 48.2%로 대폭 감소한 후 2012년 67.4%, 2013년 72.8%, 2015년 70.7%로 전체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 이러한 재범율의 증가는 출소자의 사회재적응을 위해 교정기관 및 국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정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지 검토해볼 필요성을 제시한다.

출소는 단지 수용자가 교도소에서 일반 사회로 이동하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출소자의 사회재적응 실패는 재범의 약순환으로 연결되므로, 이는 또다시 사회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3]. 출소자가 재범에 이르는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 개인의 공격적 성향, 낮은 자아존중감, 알코올 남용과 성장기 트라우마와 같은 개인적인 요인에서부터 직업 불안정성과 낮은 사회적 결속 등의 사회적 요인들이다[4-6]. 이와 같은 출소자의 위험요인들을 완화하기 위한 보호요인으로 박선영[7]은 고용, 거주지, 의료지원, 복지지원, 가족관계, 대중의 낙인 등을 예로 들며, 출소자들의 사회재적응을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범죄의 원인에 대해 특히 사회적 요인에 주목했던 Hirschi[8]는 범죄는 개인의 사회적 결속이 약화되거나

붕괴되었을 때 생겨난다고 했으며, Shaw와 McKay[9]는 범죄 발생이 지역사회의 해체와 이로 인한 구성원에 대한 사회통제력의 약화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출소자의 재사회화에 자아존중감 등의 개인 심리적 요인의 회복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협력, 출소자가 일상생활로 돌아가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꾸준히 출소자를 돌보는 정부차원의 사례관리 등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것으로 보고된다[10-12].

또한, 출소자는 가정이 와해되거나 독신인 경우가 많고, 학력이 낮은 사람의 비율이 높는데[13], Sampson과 Laub[14]은 결혼하여 가정을 갖고, 안정된 직업 활동을 하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미혼, 독신, 실업상태에 있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에 비해 관습적 제도와 규범을 수용하는 정도가 높아 범죄와 일탈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은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 출소자가 관습적 제도와 규범을 수용하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수용단계에서부터 출소 후 사회재적응에 필요한 교육들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정영승[15]은 출소자는 상당기간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회 변화에 익숙하지 못하며 교정시설 내에서 받은 사회복귀준비 처우로는 출소 후 현실사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 출소자의 사회적응에 대한 준비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였다. 사회와 단절되어 있다가 나온 출소자들은 기존의 정서, 지식, 가치들로는 새로운 사회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직업 교육, 규범, 조직생활의 이해, 대인관계 기술 등을 습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김영식과 서호영[16]은 수형자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정부의 교정, 보호, 갱생 기구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수형기간 중에 가족관계 유지, 심리치료,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용 초기부터 수용자의 사회복지를 염두에 두고 출소 후 사회재적응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출소자의 사회재적응을 위한 노력으로 이인근[12]은 가족지원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했으며, 수감자의 출소 후 가족 복귀에 대해 교정기관 상담자의 인식에서 바라본 연구가 있었다[17]. 또한 출소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수형자 직업교육의 개선 방안[18], 수용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연계[19], 출소자의 취업과 취업유지를 위한 취업지원 업무 경험에 관한 연구[20]가 이루어졌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정부산하기관으로서 출소자의 사회재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숙식제공, 주거지원, 직업기술훈련, 심리상담 서비스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출소자의 가족 복귀를 통한 재사회화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가정을 회복시키기 힘들거나 돌아갈 가족이 없는 출소자 또는 성범죄, 마약사범 등 특수 범죄자의 경우 단순히 가족 복귀 사업으로는 이들의 사회재적응을 위한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어 여러 제도적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출소자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21], 출소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사회적인 차별이 있으며, 사람들은 출소자를 자신들과는 다른 세계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출소자들은 직장생활에서 차별을 느끼거나 원치 않게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인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2].

본 연구에서는 교정과 관련 있는 대학교수, 판사, 교정시설 종사자 등의 교정전문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제공하는 교정상담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출소자의 사회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장애요인을 살펴보고 향후 요구되는 정책적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출소자의 사회재적응을 위해 필요한 교정당국의 정책방향 수립과 사회의 지원체계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교정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서 수감자와 출소자들을 오랫동안 현장에서 직접 만나왔기 때문에 출소자의 사회재적응 경험과 관련하여 실제적인 경험 내용을 바탕으로 출소자의 사회재적응을 위해 다양한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교정전문가와 교정상담자가 인식하는 출소자의 사회재적응 과정에서의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II. 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교정전문가 한 명을 처음 추천받아 인터뷰를 진행한 후 연구 목적에 적합한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는 눈덩이 표집방식으로 연구참여자들을 선정하였고, 공단에 소속된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18명의 교정전문가 및 교정상담자들이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연구실이나 집무실을 방문하여 심층면접이 이루어졌고, 연구참여자에게는 소정의 면접 비용이 지급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교정전문가 10명 중 6명은 법무부 산하의 교정시설 종사자였으며, 판사 1명, 교정 관련 전공의 대학교수 2명, 형사정책관련기관 연구원 1명이 포함되었다. 이들의 전문 분야는 범죄학, 법학, 사회학, 사회복지, 임상심리, 상담심리, 범죄 심리이며, 공통적으로 수형자 및 출소자들을 상대로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교정 분야에서 이들의 근무경력은 평균 16년으로, 최소 5년에서 최장 27년 근무하였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본부를 비롯하여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경남 지부 등이 있으며, 출소자와 그 가족의 회복을 위해 가족회망센터를 개소하여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출소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자녀학업지원 등을 담당하는 상담자 8명의 전공분야는 상담심리 3명, 임상심리 2명, 범죄 심리 2명, 사회복지 및 가족치료 1명 등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출소자 상담을 포함한 이들의 상담 경력은 평균 7.3년으로 나타났다. 교정전문가는 10명 중 남성이 7명, 여성이 3명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았고, 상담자는 남성이 2명, 여성이 6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2. 자료 수집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A대학교에서 수행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연구용역 <2015년 출소자 가정 복원을 위한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방안>을 수행하면서 얻은 심층면접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본 심층면접 자료를 활용하여 출소자의 가정복원 과정에 관한 교정전문가의 인식[17]과 상담자의 인식[23]에 관한 연

구가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대한 후속연구로 사회재적응 경험에 초점이 맞추어져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들은 수형자 및 출소자의 교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교정전문가 및 교정상담자로서 면접은 기존 문헌 탐색 및 분석을 통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개발하여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질문의 내용은 크게 인적사항 및 출소자 관련 전문 분야, 가족 복원에 대한 질문, 출소자의 사회재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내용을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였다. 상담심리 전공교수가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석·박사과정 학생 2인이 보조자로 참여하였다. 면접은 개인별 1회 실시하였으며, 시간은 대략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 소요되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는 면담자 1인과 석사과정생 3인이 참여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Krippendorff(2003)가 제안한 내용분석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24]. 내용 분석은 메시지의 의도, 의미, 전달과정에 주목하는 질적 분석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방법으로 지식, 통찰, 행동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에서 맥락까지 타당한 추론을 이끌어내는 연구방법이다[25]. Krippendorff(2003)의 내용분석은 단순히 내용을 열거하는 것에서 벗어나 차원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자들은 출소자의 사회재적응 과정에서의 경험을 교정전문가 및 교정상담자의 시선으로 분석함에 있어 다방면의 차원을 동시에 분석하고자 했기에 Krippendorff(2003)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Krippendorff(2003)가 제안한 내용분석의 첫 단계는 텍스트 전체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과정이다. 연구자들은 심층면담 축어록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객관적인 입장으로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였으며, 교정전문가 및 교정상담자들이 교육적, 정서적, 경제적, 사회·제도적 차원에서 출소자의 사회재적응 과정에 대해 어떻게 인식을 하였는지, 그 인식이 출소자에 대한 이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두 번째 단계인 의미 있는 진술(significant statement) 찾기를 위해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가 구술한 내용을 문장으

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 문장이나 어구들 중 출소자들의 사회재적응 경험과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들을 발견하여 의미를 구성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 연구자들은 의미 있는 진술을 개념화 한 후에 이 개념들 중 서로 관계가 있거나 유사한 것들을 결집하여 범주화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차원화로, 범주를 바탕으로 각 경험을 보호요인, 장애요인, 정책 지원별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 심리치료, 취업 및 구직활동, 봉사·문화·여가 활동, 사회·국가적 지원의 5가지 영역에 대한 15개 차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최우선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의 비밀보장을 위해 녹음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되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하고 번호를 사용하여 자료를 구분하였다. 또한 연구 시작 전 연구참여자에게 인터뷰 녹음, 자료의 활용과 범위, 연구의 목적과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동의를 구하였다. 추가 면접의 어려움으로 연구참여자들에게 본인이 보고한 내용이 사실적으로 표현 되었는지 재확인하는 절차는 생략되었으나, 질적 연구 전문가로서 다수의 질적 논문을 연구하고 게재한 외부전문가 1인에게 자문을 받았다.

III. 결 과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에서 도출된 출소자들의 사회재적응 과정에서의 경험을 다양한 분야의 교정전문가 및 교정상담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보호요인과 장애요인, 향후 요구되는 지원을 위한 정책적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면담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소자들의 사회재적응 경험에서 ‘교육’, ‘심리치료’, ‘취업 및 구직활동’, ‘봉사·문화·여가 활동’, ‘사회·국가적 지원’의 5개 영역과 관련된 15개의 차원, 36개의 범주, 77개의 의미단위를 도출하였다. [표 1]에서 출소자의 사회재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참여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한 의미단위를 범주화하였고, 차원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표 1. 출소자의 사회재적응과 관련하여 의미단위, 범주, 차원 및 영역 목록

의미단위	범주	차원	영역
주민등록증 발급부터 신용회복을 위한 지침 등을 알려주는 출소 전 생활지도 교육은 누 범자나 오랜 수형생활로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지식이 부족한 출소자들의 자연스러운 사회 진입을 도움	기본 소양 교육		
저축하는 습관과 같은 재정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은 부양가족이 없어 숙식지원을 받는 출소자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강화하여 생활의 안정을 찾도록 함	보호요인으로서의 교육		
수형자에서 출소자로 전환되는 출소 직전에 인지역량강화, 대인관계 기술 같은 심층적인 사회성 향상 교육을 받을 경우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됨	사회성 향상 교육		
출소 전 생활지도 교육과 출소 후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사전 교육과 실천 경험을 매칭 시켜 직업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함			
출소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새벽에 출근 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는 등 피곤에 절은 생활로 일주일에 한 번 참석하는 교육도 힘들어 함	교육 효과 저해 요인		
중독자의 경우 알코올 및 마약에 대한 갈증이 커져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가 낮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참여로 교육의 효과성이 떨어짐	교육의 장애요인		
전반적인 교육이 직업훈련, 취업활동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생활지도, 인터넷 활용 등 변화된 사회에 적응을 돕는 교육의 수가 적음	편중된 교육시스템	교육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남성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 출소자들은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음			
출소자들 중 재범률이 높은 알코올 중독자들에게는 분노와 스트레스 관리를 솔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소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함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교육 구조		
마약처럼 중독성이 강한 약물은 단기적인 중독교육으로는 중독의 늪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중독 치료 전문가와 교정당국의 협업을 통한 장기적인 교육이 절실함			
중독자는 과거 범죄 동료들과의 만남을 통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지역으로의 이주를 권유하는 등 원천적으로 기존 범죄자들과 차단시키는 교육이 중요함	향후 교육의 보완점		
남녀의 심리적인 특성이나 차이점을 알지 못하는 출소자들을 위해 이성과의 기초적 대화법 등 안정된 가정 형성의 열쇠가 되는 교육이 필요함	새로운 관점의 교육		
올바른 직업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취업을 하더라도 동료들과의 마찰이나 일이 힘들다고 느껴지면 무책임하게 그만두기 때문에 단순한 직업훈련이 아닌 직업의식 개선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영화치료의 경우 영화 속 내용이 매개가 되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심리 상담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됨	매체를 활용한 심리 치료	보호요인으로서의 심리치료	심리 치료
신문 문쳐서 던지기, 실태래 굴리기 등 몸을 움직이는 심리치료와 레크리에이션이 가미된 원예치료, 웃음치료가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어 효과가 좋음			

의미단위	범주	차원	영역
미술치료는 일반 심리 상담에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림으로 나타내며, 내면의 거울로 작용하여 자아성찰의 장을 마련함			
경제사범들은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동기가 강해서 개인 상담을 자청하며, 상담 이후에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많음	출소자 유형에 따른 심리 치료		
절도 또는 성폭력 등 범죄유형이 비슷한 출소자들을 모아 집단 상담을 실시했을 때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보며 공감대가 형성되어 상담의 몰고름 틀기가 쉬움			
심리적 문제로 인한 재범률이 높음에도 심리치료에 대해 동기가 없는 내담자들은 상담자들이 치료적으로 접근하기 힘들	낮은 동기와 거부 반응		
심리적 자립을 돕기 위한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출소자들은 죄를 지었던 과거를 다시 들추는 것에 대해 괴로워하며 심리치료에 대한 거부 반응을 나타내기도 함			
처음 집단 상담을 접하는 출소자들은 집단에서 나온 내용을 집단원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자기 노출을 꺼려함	집단상담에 대한 부담감		심리치료의 장애요인
출소 후 집단상담 참여 시 집단생활을 했던 교도소가 연상된다며 괴로움을 토로하고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있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 투사 검사에 대한 반감이 커져 검사 실시 자체를 꺼려함	심리검사에 대한 방어적 태도		
심리치료를 위한 심리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며, 내용이 쉽고, 간결하지 않으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아무렇게나 해버리는 등 심리치료를 위한 검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집단 내에서의 자기노출로 인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로 구성하여 상담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실시한 후 심층적인 집단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임	공감을 이끌어 내는 심리 치료		
일반인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사이코드라마, 동기강화상담을 출소자들에게 실시했으나 공감을 얻지 못했으므로 출소자들의 입장을 반영한 심리치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향후 심리치료의 보완점		
수용자 상담 시 전과를 속이는 등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담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교도소 내 상담자에게 수용자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함	심층상담을 위해 상담자에게		
출소자가 불안정한 가족의 일원일 경우 그 가족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함께 출소자의 입소부터 출소 후까지 지속적인 심리 상담과 인생설계가 필요함	출소자 정보 제공이 필요		
동료들이 출소자에게 아침에 커피를 타주는 등 따뜻한 관심을 보이는 회사 분위기 속에서 보다 빨리 정착함	직장 동료 및 회사의 따뜻한 관심		
사업주가 출소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멘토의 역할을 할 때 회사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고 장기적인 근무로 연결되어 회사와 출소자 모두 윈-윈 할 수 있게 됨	보호요인으로서의 취업 및 구직활동		
안정적인 직장생활로 진입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취업지원 및 알선에는 능동적으로 참여함	취업프로그램 참여 후 장기근속		
취업성공패키지 교육을 받았거나 한 회사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장기근속으로 이어짐			

의미단위	범주	차원	영역
출소자들은 누군가에게 얽매이지 않고 마음대로 쉬고 싶을 때 쉬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단순 노동직을 선호함	자유롭고		
먹고 사는 생계에 급급하여 즉시 현금으로 일당을 받는 꼴맛 같은 일용직을 선택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직업으로 연결되지 못함	단기적인 직업 선호		
드물게 일하게 되는 일용직을 매일 할 수 있는 월급으로 계산하여, 일반회사 보다 월급이 많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 노동직을 선호함	취업 및 구직활동의 장애요인		
출소 전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출소 후 열악한 직장생활과의 괴리가 발생하여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만을 표출하며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직업과 급여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직업 선택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과 무관하게 고액의 급여를 희망하기 때문에 취업이 힘들게 되고 이로 인해 경제생활 진입 자체가 늦어지게 되어 불안정한 경제생활이 길어지게 됨	다양한 구직 프로그램 마련		
자활 의지가 있는 출소자들의 경우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며 그 수익을 배분하는 등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될 때 삶의 의지가 생기며 안정적인 직업생활로 연결됨	향후 취업 및 구직활동에서의 보완점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취업이 잘 되고, 직장에 안착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출소 전 보다 다양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함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		
출소자에 대한 선입견 없이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업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함	보호요인으로서의 봉사활동		
순수 민간시설의 경우 출소자들의 장기적인 직업정착을 유도하지만 적은 예산으로 소수만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더 많은 출소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봉사활동에서의 보람		
자신이 후원하는 아이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 봉사활동을 통한 타인과의 대화기술을 습득하며 봉사활동을 문화 활동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즐거움을 느낌	보호요인으로서의 봉사활동		
여가시간에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목욕봉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법을 깨닫게 됨	봉사활동 통한 자존감 향상	봉사·문화·여가 활동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후원하며 자신도 누군가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고,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며 자존감을 향상시킴	여가활동의 부재로 낙(樂)이 없는 삶	문화 및 여가 활동의 장애요인	
자신의 건강한 신체를 이용하여 요양원이나 지체장애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낌	문화 및 여가 활동의 장애요인		
돈이 있어도 어떻게 써야할지 몰라 출소 후의 일상생활이 단조롭고 삶의 낙이 없음	문화 및 여가 활동의 장애요인		
여가 활동에 대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 TV만 보거나 음주를 취미로 여기는 등 효율적인 여가 활동을 통한 재충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문화 및 여가 활동의 장애요인		
뉘페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지조차 모르는 등 일반인들은 자연스럽게 향유하는 외식문화도 경험해보지 못함	문화적 향유		

의미단위	범주	차원	영역
비행기를 처음 타보거나 살던 지역 밖으로의 외출을 낯설어하며 한정된 공간에서의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난 새로운 경험을 누리려 보지 못함	폐쇄적인 교도소 문화 개선		
가족을 비롯한 일반인 또는 사회와의 접촉을 제한하는 폐쇄 접견이 사회와의 완전한 단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 접견 등을 통해 출소 전부터 세상과 만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향후 문화 및 여가 활동에서의 보완점		
가족과 접촉 가능한 거리 내에서의 수용 생활을 통해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수용제도의 개선이 요구됨	향후 문화 및 여가 활동에서의 보완점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 때문에 취미생활을 경험 해보지 못한 출소자들을 위해 교도소 내 헬스클럽 등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출소 후 자연스러운 문화 및 여가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범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향후 문화 및 여가 활동에서의 보완점		
수용자 처우 법률에 '수용자는 독거 수용한다' 는 원칙이 제시되어 있지만 시설이 충분치 않아 성경책을 읽거나 노래를 흥얼거리고 싶어 하는 등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보장받지 못한 채 무의미하게 단체로 텔레비전만 봐야하는 수용 시설의 개선이 필요함	수용자 자녀를 배려하고 관심을 주기 위해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 매뉴얼에 수용자 자녀에 대한 응대 방법을 추가함	수용자 자녀를 위한 배려	
수용자 자녀를 배려하고 관심을 주기 위해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 매뉴얼에 수용자 자녀에 대한 응대 방법을 추가함	수용자 자녀를 위한 배려		
해외탐방을 부상으로 하는 수용자 자녀 지원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전이 대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자연스럽게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서 사회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킴	수용자 자녀를 위한 배려		
범죄자가 아님에도 범죄자 자녀라는 사회적 시선에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출소자 자녀들을 위해 시민단체가 사회적인 안전과 인도주의적 관점의 지원을 시자했고, 점차적으로 국가가 나서게 됨	사회적 낙인의 대물림 예방		보호요인으로서의 사회적 낙인 및 국가적 지원
출소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키다리 아버지 희망 프로젝트의 경우, 자녀들에게까지 대물림되는 사회적 낙인을 예방하기 위해 출소자 지원 프로그램임을 알리지 않고 진행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김	사회적 낙인의 대물림 예방		보호요인으로서의 사회적 낙인 및 국가적 지원
출소 후 갈 곳이 없거나 부양할 가족이 있지만 능력이 안 되는 출소자의 경우 최소한의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원 서비스를 통해 사회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줌	다양한 주거 공간 지원		사회·국가적 지원
국가가 지원하는 중간 처우의 집과 민간이 지원하는 사회형 그룹홈은 갈 곳 없는 소년범과 모범수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함	다양한 주거 공간 지원		사회·국가적 지원
출소자들은 죄 값을 치르고 나왔음에도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범죄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의식하느라 일상생활에서 위축되고 소심해짐	사회·경제적 지위를 위협하는 부정적인 시선		사회 및 국가적 지원의 장애요인
범죄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동료와 회사 내의 편견어린 시선으로 퇴직이 강요되고, 생계유지가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가 빈번해서 결국 출소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취업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제적으로 조성됨	사회·경제적 지위를 위협하는 부정적인 시선		사회 및 국가적 지원의 장애요인
수형기간으로 인해 학업에 대한 출발점 자체가 늦어져 버린 소년범들은 절망감과 고립감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까지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야기함	지속적으로 범죄에 노출		

의미단위	범주	차원	영역
가정폭력과 저소득층에 속하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다른 생각때문에 타인의 불편한 시선을 받게 되며 범죄의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음	되는	위기의	소년법
결손가정 또는 가족에게 학대를 받는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상황에 놓이게 됨	의료	지원 및	거처가 없는 불안정한 출소자의 삶
출소 후 경제적 자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 방문조차 어려운 자금 사정으로 인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기도 함	사회	각계각	층의 지속적인 관심 요구
출소 후 갈 곳이 없는 장기 복역한 출소자의 경우, 익숙하고 생계걱정이 없는 교도소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음	사회의	각계각	층의 지속적인 관심 요구
수용자에서 출발하여 출소자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정당국의 수용자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함	교정	시설 및	교도 인력의 확충
출소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교정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언론과 학계에서도 꾸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함	향후	사회 및	국가적 차원에서 의 보완점
UN의 권고사항과는 달리 지나치게 많은 수용자와 교정 시설 인력 부족으로 수용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처우가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적극	적인	소년법 관리
과밀한 소년원에서 열악한 집단생활을 하며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하는 소년법들을 위해 소년원의 증축과 처우개선이 요구됨	소년법	관리	
민간차원에서 시도되는 '사회형 그룹홈'의 경우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복지시설로 인정되지 못해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	빅데이	터 구축	및 통합적 접근
소년법의 누범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와 소년원 내에 일반 상담자와는 별도로 교정전문상담사를 충원하여 청소년들의 범죄를 예방 및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교정당	국의	대내외적인
가정에서는 돌보기 힘든 지적 장애와 경계선 성격장애 등 정신장애와 관련 있는 아이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국가차원의 보호와 원호가 필수적임	부	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함
출소자들의 교정과 사회재적응을 위해 통계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출소자 관련 빅데이터 구축이 절실	소년법	관리	
사회 복귀를 촉진시키는 의료지원, 고용, 거주지, 가족관계, 복지, 대중의 낙인 등 사회적 지원이 통합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소통과	협업	
출소자들의 진정한 교정을 위해서는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법무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함	소통과	협업	
교정당국에서 근무하는 실무자 및 전문상담자가 함께 출소자의 처우를 고민하는 등 부서 간 원활한 소통과 협업이 필요함	소통과	협업	

1. 교육

보호요인으로서의 교육

연구참여자들은 수용자들을 위한 출소 전 기본 소양

교육이 일반적인 사회인이라면 알아야 할 규범 준수, 행정업무 등 기초적인 지식조차 알지 못하는 출소자들의 사회 적응에 밑거름이 된다고 하였으며(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 6),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사회성 교육은 출소자가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연구참여자 14, 연구참여자 16).

“재범이 많이 일어나고 전과 횡수가 많다는 것은 사회성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사회지체, 문화지체 이게 사실 좀 심각합니다. 나이만 들었지 몰라요. 범죄 쪽으로는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나머지 사회생활 전반에 지체 현상이 엄청나게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으로 기본 소양 교육부터 해서 법질서, 행정업무 등을 알려줘야 해요. <중략>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제도도 잘 몰라요. <중략> 아주 기초적인 소양 교육, 기본적인 사회질서 지키기에 대한 교육들을 하고, 아주 평범한 교육인데도 이분들에게는 꼭 필요하죠.” (연구참여자 6)

교육의 장애요인

연구참여자들은 생계유지에 급급한 출소자들의 여건이 장기적으로 삶에 도움이 되는 교육의 적극성과 효과성을 낮추며 도움을 받아야하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게 된다고 진술하였다(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 14).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교육이 취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교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들을 제공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소수자를 위한 교육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구술하였다(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 9).

“특별히 전문성 있는 교육은 할 수도 없고 하질 못해요. 왜 첫째는 이 사람들 취업활동을 해야 하고, 취업이 제일 중요하고요, 둘째는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기술이 있어야 노동시장에 진입이 좀 유리하고. 우선 생계가 먼저라서요.” (연구참여자

6)

향후 교육의 보완점

추가적으로 필요한 교육으로 재범률이 높은 알코올,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 약물남용의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 방식, 감정을 다룰 수 있는 대처 방식에 대해 전문적이면서도 장기적인 교육을 제안하였다(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 17). 또한 이성 관계를 원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들을 위한 남녀의 대화법 차이에 대한 교육(연구참여자 12, 연구참여자 14), 올바른 직업관에 대한 인식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직업의식에 대한 교육(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 11) 등 새로운 관점의 교육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특히 이성문제에 관련해서 여자를 한 번도 안 만나 보신 분들도 계시고, 관계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구요.” (연구참여자 12)

2. 심리치료

보호요인으로서의 심리치료

여러 심리치료 중에서도 영화치료, 레크리에이션이 가미된 웃음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등 주로 신체 및 매체를 활용한 활동적인 프로그램들이 참여자의 반응과 참여도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 14, 연구참여자 16). 한편, 출소자의 유형에 따라 심리치료에 대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언급도 있었는데, 경제사범의 경우 변화에 대한 동기부여가 높아 개인 상담을 선호하며, 비슷한 유형의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을 실시했을 때, 집단응집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연구참여자 14, 연구참여자 18).

“처음에는 시각적이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어느 순간 집중을 할 수 있는 것들 시각적인 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 좀 단순하셔요.” (연구참여자 14)

심리치료의 장애요인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 따르면, 삶에 대한 의욕이 없어 변화에 대한 동기 자체가 낮은 출소자의 경우 상담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며 지속력이 짧았다고 보고했다(연구참여자 14, 연구참여자 16). 집단 상담을 진행할 때에도 일부 출소자들은 교도소 안에서의 집단생활이 연상되어 괴로워하거나 서로간의 긴장 관계가 일어나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했으며, 자기노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참여를 거부하기도 한다고 진술하였다(연구참여자 11, 연구참여자 16). 또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심리검사에 대해 출소자들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심리치료를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연구참여자 11, 연구참여자 14, 연구참여자 18).

“첫 회기에서 마지막 회기까지 연속으로 오신분이 두 분 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분들 중에는 한 분 탈락도 하시고. 이런 분위기를 견딜 수가 없다고. 내가 왜 내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강요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압력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연구참여자 11)

향후 심리치료의 보완점

연구참여자들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와는 차별화된 출소자 맞춤형 심리치료를 통해 공감을 이끌어내어야 하며, 치료에 들어가기 전 상담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는 위밍업 단계를 통해 긴장감을 풀어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연구참여자 14). 또한 교정상담자들은 출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심층 상담이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다문화 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 등 배려가 필요한 가족 구조를 지닌 출소자를 위해 차별화된 상담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연구참여자 10, 연구참여자 16).

“집단 상담 전에 위밍업을 한다면 거기에서부터 물꼬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위밍업과 관

련된 프로그램이 초기에 나올 수 있으면 좋겠
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참여자 14)

3. 취업 및 구직 활동

보호요인으로서의 취업 및 구직활동

교정전문가는 직장 동료나 회사의 따뜻한 관심이 출
소자들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에 원동력이 된다고 기술
하였는데, 특히 사업주가 멘토의 역할을 할 때 출소자
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조직 분위기에 보다
잘 정착할 수 있게 되어 회사와 출소자 모두 윈-윈 하
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했다. 또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
단의 취업 교육 및 알선과 고용노동부와 연계된 취업성
공패키지 프로그램이 출소자의 장기근속의 토대를 마
련한다고 보고하였다(연구참여자 2).

“아침에 오면 커피한잔 하면서 분위기를 북
돋아 주고 정을 주니까 애들이 따라가는 것 같
고. 애들이 정에 정말 메말라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짜로 정을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못 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서는 안 받았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2)

취업 및 구직활동의 장애요인

출소자들은 조직에 옴메이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며
즉시 현금으로 일당을 받을 수 있는 단순 노동직을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특정하게 받는 일당을 일반
직장인의 월급으로 계산해서 월급보다 일당이 많다는
착각을 하는 등 출소자의 경제관념 부족은 불안정한 직
장생활을 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았으며(연구참여자
11), 오랜 수감 기간으로 현재의 고용시장에 대한 이해
가 없는 출소자들의 급여나 직장생활에 대한 비현실적
인 기대가 출소자의 직업 적응이나 경제생활 진입에 방
해가 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
자 16).

“출소 한 달 전에 먼저 들어가서 사전 상담
이라고 해드려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딱 들
어가면 다 뭐라고 하시냐면 되게 좋은 곳으로

취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특히 장기
수일수록. 왜냐면 현실을 모르시니까. 그리고
이렇게 붕 떠 계세요.” (연구참여자 16)

향후 취업 및 구직활동에서의 보완점

연구참여자들은 출소자들의 경제생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지원 확대, 다양한 전문자격증 지원 프로그램 마
련이 더욱 절실하다고 하였으며(연구참여자 4, 연구참
여자 12),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출소자를 고용하
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유기농 농법으로 농
사를 짓는 등 출소자의 직업 정착을 유도하는 민간단체
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연
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 4).

“우선 사업체 자체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기
가 어렵죠. 지금 현재로는. 사업체는 자기 기업
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써서 기르려면 제대로 하려면 별도로
해줘야 하거든요. 챙겨주고 정을 주고 적응을
해주게 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사업체들이
많이 이 사회에 생겨나게 되면 아이들이 빨리
정착하고 있지 않을까.” (연구참여자 2)

4. 봉사·문화·여가 활동

보호요인으로서의 봉사활동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들은 출소자들이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목욕봉사, 편지쓰기 등 자발적인 사회
적 참여로 보람을 느끼면서도 자연스럽게 사회성이 발
달한다고 진술하였다(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 8). 다
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에 익숙한 출소자들이 아이들
을 후원하고 자신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
게 되면서 감사함을 느끼는 등 출소자의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
자 11).

“나는 참 육체가 건강한 거 육신이 건강한
것만으로도 참 복이다. 내가 많이 느끼게 되죠.
지금 내가 의지를 가지고 힘든 일을 하려하면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데 정신지체 이런 젊은 애들도 사회활동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느끼더라 이겁니다.” (연구참여자 6)

문화 및 여가활동의 장애요인

출소자들은 ‘여가’라는 개념 자체를 잘 알지 못하며, 돈이 있어도 어떻게 써야할지 몰라 특별한 즐거움 없이 단조롭게 삶을 연명한다고 하였다(연구참여자 11). 연구참여자들은 출소자들에게 건강하고 즐거운 문화 활동을 통해 삶을 재충전 하는 탄력성이 부족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출소자들 중에는 외식을 하고, 영화를 보는 등 기본적인 문화적 향유조차 사치이고 낯설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였다(연구참여자 17).

“그걸 아예 모르시는 거예요. 텔레비전만 보시고 저거는 나 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이다. 단지 텔레비전에서만 나오는 영화 같은 그런 일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 인지를 안 하시다, 직접 해 보면 재미 있으시다고 나중에 또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냥 또 술 마시는 거 그게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서는 취미 생활 인거거든요.” (연구참여자 11)

향후 문화 및 여가 활동에서의 보완점

연구참여자들은 폐쇄적인 교도소 문화 및 공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였다. 폐쇄 집단은 사회와의 완전한 단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집단 등을 통해 출소 전부터 세상과 연결되는 창을 더욱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연구참여자 4). 또한, 개인적인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는 교도소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는 출소 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부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언급하며, 수감 중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수용시설 확충과 문화 및 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고 하였다(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 11).

“우리나라는 혼거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생활, 자기가 예컨대 성경책을 아니면 자기는 노래를 한 번 흥얼거리고 싶다. 노래를 불러보고 싶다. 큰 소리가 아니더라도, 불러보고 싶지 않습니까? 혼거실에서 부를 수가 없죠. 함부로 부를 수가 없죠. 자기 개인적인 뭘, 볼 수가 없죠. 방 안이 공동생활을 해야 되고 텔레비전을 봐야 되고.” (연구참여자 4)

5. 사회·국가적 지원

보호요인으로서의 사회 및 국가적 지원

교정전문가들은 출소자 자녀들이 범죄와 사회적 낙인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에 수용자 자녀를 위한 전문상담교사 상담 매뉴얼을 보급하고 있다고 하였으며(연구참여자 10), 민간차원에서 시작된 출소자 가족에 대한 사회적 낙인 예방 활동이 국가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였다(연구참여자 9, 연구참여자 16). 또한 출소자와 소년범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주거 공간은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연구참여자 7, 연구참여자 10).

“그 아이들한테 박탈된 권리를 보장 해주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수용자 미성년 자녀 지원으로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 학교에 지금 전문 상담교사들이 있잖아요. 전문상담교사가 상담 매뉴얼이 수용자 자녀에 대한 것을 일부 넣었어요.” (연구참여자 10)

사회 및 국가적 지원의 장애요인

연구참여자들은 위와 같은 지원에도 여전히 범죄자라는 부정적인 사회적 낙인은 출소자의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발생시킨다고 진술하였다(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 8). 특히, 소년범의 경우 수형 기간으로 인해 다른 아이들보다 학업에 대한 출발점 자체가 늦어져 절망감과 고립감으로 계속해서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하였다(연구참여자 7). 또한, 출소 후 경제적 자

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지원과 주거지원 등의 기본적인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출소자들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하였다(연구참여자 12, 연구참여자 14).

“대부분 출소자라는 이유가 가장 크고요, 예를 들어 예전에 어떤 식구는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취업을 했는데, 사람 관계가. 특히 ○○바닥은 좁은지는 모르겠지만 물어 물어 출소자를 것을 알았을 때, 회사에서 아무이유 없이 회사에 나오지 마라. 알리고 가면 회사에서 뽑질 않습니다. 식구들 입장에서는 숨기고 가고.” (연구참여자 2)

향후 사회 및 국가적 지원에서의 보완점

교정전문가들은 밖에서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안에서는 수용자 및 출소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교정 시설 및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언론 및 학계 등 사회 각계의 출소자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때, 정부의 사회적 지원과 일반인의 시각 또한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 8). 또한, 열악한 교정 환경 속에서는 제대로 된 교정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교정시설의 개선과 교정 인력의 확충을 통한 출소자의 처우 개선이 보다 시급하다고 제안하였다(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 7).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소년범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 보호관찰 및 비행청소년에 대한 예방 교육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연구참여자 7, 연구참여자 9). 결과적으로 출소자들을 위한 통합적이고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구축이 절실하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고용, 거주지, 의료지원, 복지지원, 가족관계, 대중의 낙인 방지 등 편중되지 않는 지원을 제시하였다(연구참여자 9). 더불어, 교정당국의 대내외적인 소통과 협업이 이루어질 때,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6, 연구참여자 14).

“거기에 몇 명이 있었는지 거기를 몇 명이

거쳐 나갔고, 거쳐 나간 사람 중 몇 명이 취직되었는지 그 자료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정책 제언할 때 자료 축적 좀 제발해라. 이렇게 씁니다. 그게 있어야 될 하던가 하지.” (연구참여자 9)

IV. 논의

본 연구는 출소자의 사회재적응 과정에서 보호요인과 장애요인, 향후 정책제언의 요소를 교정전문가 및 교정상담자의 인식을 통해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교정전문가와 교정상담자가 바라본 출소자의 경험은 ‘교육’, ‘심리치료’, ‘취업 및 구직활동’, ‘봉사·문화·여가 활동’, ‘사회·국가적 지원’의 5개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영역의 보호요인과 장애요인, 제언 및 정책 제시로 구성된 15개의 차원, 36개의 범주, 77개의 중심개념이 도출되었으며, 결과 요약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소자의 경험에서 ‘교육’은 출소 전, 후의 사회적응을 돕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교정당국에서 제공하는 기본소양교육과 사회적 향상교육은 출소자들이 수감 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틀을 마련해준다는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교육이 출소자의 기본적인 사회복지 수단이 되며[26], 교육을 통한 재사회화로 건전하고 선량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킨다[27]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법무부의 이러한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덕분에 교정교육은 문맹퇴치교육에서부터 출발하여 지금은 문화예술교육, 독서치료교육 등을 비롯하여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마약사범 재활교육 등 중독성범죄에 대한 교육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28][29].

반면, 교육의 효과성을 낮추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하였는데, 본 연구에서의 교정전문가 및 교정상담자들은 출소 후 생계유지에 따른 교육에 대한 출소자들의 낮은 동기과 중독자들의 비참여적인 태도, 편중된 교육 시스템 등을 언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출소자들이 출소 후 당장의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을 해야 하기 때

문에 교육 참여를 힘들어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사범의 경우, 알코올과 약물을 혼자서는 끊어내기 어려운데 반해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성 때문에 중독치료의 효과를 보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소자들을 위한 교육이 직업훈련, 취업활동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있어 생활지도, 인터넷 활동 등 변화된 사회에 적응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의 숫자가 많지 않으며, 다수인 남성 위주의 교육시스템은 여성출소자 등 소수 집단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렇듯 본 연구의 결과는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가 교도소의 교정행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여성재소자들의 업무와 직업훈련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고, 여성과 관련된 형법 및 시행령은 여성들의 모성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선행연구들과도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30-33].

교정전문가 및 교정상담자들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교육으로 중독자들에게는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감정을 알코올이나 마약으로 해소하지 않고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통해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교육이 일회성 교육이 아닌 장기적인 교육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선행연구[34]에서처럼 교육에서 중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강의와 주입식 진행에 치우친 프로그램들에서 벗어나 참여자 자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성과의 기초적인 대화조차도 어려워하는 출소자들을 위해 남녀차이에 따른 의사소통 교육과 직업의식 결여로 인해 무책임하게 회사를 그만두는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가치관 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심리치료’에서는 활동적이고 레크리에이션이 가미된 원예치료와 웃음치료, 오감을 만족시키는 미술치료와 영화치료 등이 출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그 효과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선행 연구들에서도 미술치료가 재소자의 자아정체감 회복과 자신감을 올리는 데 도움을 주며[35], 원예치료 중 특히 재배활동은 식물의 삶의 주기와 인간의 삶의 주기를 통합시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현재 자신의

모습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혀진 바 있다[36].

추가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절도 또는 성폭력 등 범죄유형이 비슷한 출소자들을 분류하여 집단 상담을 실시하였을 때 공감대가 형성되는 등 치료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출소자들의 심리치료에 대한 거부 반응과 방어적 태도는 심리치료의 효과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소자들은 집단 상담에 대해 집단 그 자체만으로도 단체생활을 했던 교도소가 연상되어 괴롭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수행자들은 수용생활을 하는 동안 우울, 불안, 분노, 두려움 등의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기 때문에[37], 수감 공간을 떠돌리는 집단 상담이 어떤 출소자들에게는 고통으로 인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집단 상담에 참여하는 출소자들의 경우 집단원들이 자신의 비밀을 지켜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으로 자기 개방 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담 시작 전 실시하는 심리검사는 문항이 많아 집중하기 힘들어 하며, 투사검사의 경우 원하지 않게 자신의 내면을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출소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이와 같은 집단 상담의 한계 때문에 비슷한 범죄 유형으로 집단을 구성하고 상담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실시한 후 집단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교정상담자들은 상담 시 수용자가 전과를 속이는 등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조희원과 도광조[38]는 심리사회적 사정(Psychological assesment)을 통해 출소 전 출소 예정자가 가진 욕구, 위험요소, 강점과 출소 후 돌아갈 환경, 지역사회의 자원을 파악하여 출소자 각 개인의 출소 준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출소자의 출소 후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문제 해결 및 사회재응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은 상담 시작 전 범죄 이력, 가족 관계 및 출소 전후의 사정 등 수용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들을 수집하여 상담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무부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출소자의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

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현재는 법무부 교정국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자에 대한 개인 및 사법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아서 출소자의 개인보호에 의해서만 상담 및 심리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보의 신뢰성 문제가 있어 교정상담자들이 심리치료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취업 및 구직활동'에서는 출소자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더불어 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출소자의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출소자의 취업 경험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출소자는 일 하는 것 자체에서 기쁨과 뿌듯함을 느끼며 직장에서의 존재감을 통해 자신을 다시 인식한다고 보고하였는데[19],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직장에서 출소자들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동료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업주의 멘토 역할을 통해 출소자가 장기근속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출소자들은 취업과 관련된 교육이나 기회에 대해서는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 출소자들의 경우 조직 속에서의 적응을 힘들어 해서 통제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으며, 즉시 현금으로 일당을 받을 수 있는 단순 노동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취업을 한 경우에도 높은 이직률을 보이며 직업생활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39].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수형자들이 출소 후 기대하는 평균 월수입이 그들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급여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보고하였는데[40], 본 연구에서도 출소자들의 직업과 급여에 대한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대가 직장생활 진입 자체를 늦추는 것으로 연구참여자들은 구술하였다. 따라서 수용시설에 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사회재적응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직업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고, 취업기술훈련 및 일과 직업에 대한 현실감을 갖는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출소자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취업 기회의 확대를 강조하였다. 출소자의 구직 및 취업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21][41], 본 연구의 참여자들 또한 출소자들의 취업을 위해 정부 및 지역사회, 기업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출소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없애고 출소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정부에서 출소자의 고용이 기업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때, 기업과 출소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넷째, '봉사·문화·여가 활동'에서는 이러한 활동들을 할 때 느끼는 즐거움이 출소자에게 존재의 의미를 되새겨주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교정전문가 및 교정상담자들은 출소자들이 후원이나 편지보내기, 목욕봉사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거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즐거움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여가 시간을 활용한 봉사 활동은 출소자들의 자존감 회복과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며,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식과 서호영[16]은 석방예정자가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에 선행을 실천할 때 긍정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긍심과 자존감을 고취하는 동시에 지역사회가 출소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봉사·문화·여가 생활의 장애요인은 여가 활동의 경험부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출소자들은 돈이 있어도 어디에 써야할 지 모르거나, TV를 보고 술을 마시는 것을 여가활동의 전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소자들이 스트레스 해소 방식으로 술과 도박, 유흥 등과 같이 부정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방식의 대처만을 학습했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의 경우, 다시 재범에 빠지기 쉽다는 선행연구도 이와 같은 맥락을 설명해준다[41]. 또한, 열악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라거나 오랜 세월을 교도소에서 보낸 사람들은 여행을 가거나 외식을 하는 것도 낯설어 하는 것으로 드러나 문화적인 향유 자체가 이들에게는 생소한 경험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출소자의 봉사·문화·여가 생활에 대한 내용은 기존 출소자 연구에서도 많이 다루지지 않았던 부분인 만큼 출소자 사회적

적용 경험에서의 중요한 요소로 후속연구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출소자들의 문화 및 여가생활을 위한 지원으로 수감 중 폐쇄적인 교도소 문화 개선과 여가활동 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교정전문가들은 폐쇄집건이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시켜 문화적 결핍과 결손을 가져오기 때문에 가족을 비롯해서 세상과 접촉할 수 있는 창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문화·여가 활동이 단기간에 몸에 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단계에서부터 출소자들이 개인적으로 문화 및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범죄자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사생활을 보호받고, 문화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을 때, 수용자는 수용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모습은 출소 후 사회재적응을 촉진하는 요소로 이어질 것이다. 출소자의 사회재적응 경험에서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범죄의 예방과 사회재적응을 위해서는 삶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봉사활동 및 문화·여가생활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국가적 지원'에서는 범죄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해 출소자 자녀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출소자 가족을 위한 정책이 도움이 되며, 출소 후 갈 곳 없는 출소자들을 위해 다양한 주거 공간 지원이 필요함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출소자 자립 지원 서비스 중에서 주거 지원사업과 출소자 자녀를 위한 학업 지원을 매우 의미 있고 실질적인 사회재적응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출소 후 출소자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지원사업의 예로서 소년범과 모범수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중간 처우의 집이 최근에 개설되기 시작하였으며,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는 사회형 그룹홈이 출소 후 갈 곳 없는 출소자들의 집이 되어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적 낙인과 충분하지 않은 지원 체계 때문에 수용자들의 출소 후 홀로서기가 힘들다고 보았다. 출소자들이 사회적 낙인으로 편견과 차별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이전 연구에서도 꾸준히 언급되어 왔다[11].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사회에 만연해 있는 출

소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출소자들 스스로 위축되고 소심해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취업을 하더라도 범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퇴적이 강요되거나 동료들로부터 소외당하는 직장 분위기가 출소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출소자들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청소년들을 언급하였으며, 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성인범이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오랜 기간 사회와 단절된 장기 복역수의 경우 출소 후 갈 곳이 없거나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해 의도적으로 다시 범죄를 저지른 후 교도소로 돌아가기도 하며, 출소 후 경제적인 기반이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제때에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출소자들도 있어 출소 후 국가에서 출소자들을 위해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출소자들의 사회재적응이 어렵다고 연구참여자들은 보고하였다. 이렇듯 기본적인 생활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 출소자들은 불안정한 삶을 살며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에는 수형자와 그 가족이 받는 사회적 낙인이 출소자의 사회재적응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42].

연구참여자들은 출소자들의 사회재적응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와 사회의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사회적 인식의 개선, 교정 인력 충원과 출소자 거주 공간의 추가적인 지원, 소년범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출소자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 교정당국과 국가의 타기관 및 지역 사회자원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강조하였다. 선행연구[7]에서처럼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촉진시키는 의료, 고용, 거주, 가족, 복지, 낙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중요함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출소자의 사회재적응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출소자의 연령 또는 범죄 유형에 따른 사회재적응을 특징적으로 탐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에 따라 출소자가 겪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성범죄,

마약류, 강력범죄, 사기 등 특정 범죄의 출소자들에게만 나타나는 다양한 특성 분석을 통해 보호요인과 장애요인을 탐색하고 이에 기초하여 보다 도움이 되고 실제적으로 정책 지원방향을 수집하는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6.
- [2]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2&mNewsNumb=002434100009>
- [3] 최영신, “우리나라 수형자 사회복귀과정의 단계와 지원 방안,” 형사정책연구, pp.997-1018, 2009.
- [4] 장희숙, “재범요인과 범죄유형별 특성,” 교정연구, 제39호, pp.163-190, 2008.
- [5] B. Watt, K. Howells, and P. Delfabbro, “Juvenile recidivism: Criminal propensity, social control and social learning theories,”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Vol.11, No.1, pp.141-153, 2004.
- [6] M. T. Berg and B. M. Huebner, “Reentry and the ties that bind: An examination of social ties, employment, and recidivism,” *Justice quarterly*, Vol.28, No.2, pp.382-410, 2011.
- [7] 박선영, *수형자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공생의 사회구현 실행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생발전 협동연구총서, 2012.
- [8] T. Hirschi and R. Stark, “Hellfire and delinquency,” *Social Problems*, Vol.17, No.2, pp.202-213, 1969.
- [9] C. R. Shaw, F. Zorbaugh, H. D. McKay, and L. S. Cottrell, *Delinquency areas: A study of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school truants, juvenile delinquents, and adult offenders i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29.
- [10] 이자희, *갱생보호 대상자의 재사회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11] 김선희, 최병욱, “출소자를 위한 상호통섭적 인문치료의 이론적 접근,” *인문과학연구*, 제32권, pp.403-430, 2012.
- [12] 이인곤, “연구논문: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법무 (보호) 복지사업에 관한 고찰-출소자 가족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57호, pp.137-160, 2015.
- [13] 류석진, 노지애, 이동훈, 박성현, 오세준, 조현주, “출소자 가정복귀의 위험 및 보호요인에 관한 질적 연구,” *재활심리연구*, 제23권, 제2호, pp.469-490, 2016.
- [14] R. J. Sampson and J. H. Laub, *Crime and deviance over the life course: The salience of adult social bon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90.
- [15] 정영승, *수용자의 재범방지에 관한 연구: 사회복귀체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16] 김영식, 서호영, “수형자 사회복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교정연구*, 제42호, pp.163-192, 2009.
- [17] 이동훈, 신지영, 오혜영, 박성현, “출소자의 가정복귀 과정에 관한 교정전문가의 인식,” *한국가족복지*, 제20권, 제3호, pp.499-530, 2015.
- [18] 김정호, “출소자를 위한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의 지속 방안,” *보호관찰*, 제13권, 제2호, pp.221-247, 2013.
- [19] 오재돌, “수용자 직업훈련과 출소자 취업연계에 관한 소고,” *교정담론*, 제4권, 제2호, pp.23-34, 2010.
- [20] 양난미, 이건화, 송미경, 이은경, “출소자 취업지원관의 경험에 대한 연구: 취업지원 업무, 출소자의 취업과 취업유지,” *상담학연구*, 제17권, 제3호, pp.477-502, 2016.
- [21] 장완영, *출소자의 지역사회적응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22] 이윤호, 김대권, “전과자들의 사회적 차별에 관한 경험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3권, 제2호, pp.27-60, 2007.

[23] 이동훈, 강수운, 지승희, “수감자의 출소 후 가족 복귀 경험에 관한 교정기관 상담자의 인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제22권, 제4호, pp.595-622, 2016.

[24] K. Krippendorff,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2003.

[25] 박태정, 나일주, “한국 대학생의 K-MOOC 학습 경험에 대한 내용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2호, pp.446-457, 2016.

[26] 이영근, *분류처우론*, 시사법률사, 1995.

[27] 이영희, “상습규율위반자 교정시설 적응력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45호, pp.63-93, 2009.

[28] 신용혜, “수형자 교정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교정연구, 제57호, pp.61-104, 2012.

[29] 최규철,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수형자 직업교육의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30] 신영화, *여성 재소자의 인권*,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31] 이동훈, 신지영, 조은정, 김진주, “수감생활 및 출소 후 과정에서 여성출소자의 삶과 가족관계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21권, 제1호, pp.81-108, 2016.

[32] 이동훈, 진지열, 신지영, “수감생활 및 출소 후 과정에서 여성출소자의 자녀양육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21권, 제3호, pp.327-364, 2016.

[33] 김경태, “여성범죄의 현황과 대책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7권, 제8호, pp.191-198, 2007.

[34] 박성수, 김우준, “마약류 수용자의 처우 프로그램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4호, pp.348-358, 2010.

[35] 오민자, *교도소 재소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서의 미술치료 효능성 탐구*,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36] 이상미, 문지혜, 정순진, 이지, “재배활동중심

원예치료 프로그램이 사회복지예정 수형자의 우울감과 타액 Cortisol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간·식물·환경학회지, 제16권, 제4호, pp.173-180, 2013.

[37] 김영희, 김영란, “수형자의 영성,” 교정연구, 제44호, pp.31-55, 2009.

[38] 조희원, 도광조, “출소자의 취업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교정복지학회, 제32호, pp.51-81, 2014.

[39] 임봉기, *수용자의 출소 후 사회복지경험에 관한 연구: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론을 통해*,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40] 연성진, 최진규, 유영재, 장홍근,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 선진화 방안 연구.1.[4], 출소자 주거 및 위업비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설립·육성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1-317, 2012.

[41] 김동연, *출소자의 출소 후 사회복지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보호감호 경험자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42] 허경미, “주요국의 수형자가족 지원서비스 분석 및 도입모델,” 경찰학논총, 제8권, 제2호, pp.329-354, 2013.

저 자 소 개

이 동 훈(Dong-Hun Lee)

정희원



- 2000년 9월 ~ 2006년 2월 : University of Florida(박사)
- 2006년 3월 ~ 2007년 8월 : 한국 청소년상담원 조교수
- 2013년 3월 ~ 현재 :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 한부모 가정과 자녀, 출소자 사회재적응, 재난심리, 트라우마, 위기 개입

조 은 정(Eun-Jung Jo)

정회원



- 2013년 2월 :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 2015년 2월 ~ 현재 :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관심분야> : 심리상담, 출소자 사회재적응

양 순 정(Soon-Jeong Yang)

준회원



- 2008년 2월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석사)
- 2015년 9월 ~ 현재 :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관심분야> : 심리상담, 출소자 사회재적응

양 하 나(Ha-Na Yang)

준회원



- 2016년 2월 :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 2016년 3월 ~ 현재 :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관심분야> : 심리상담, 출소자 사회재적응